

지역을 잇는 학교, 미래를 만드는 학교

교육시설의 혁신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,
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실현합니다.

1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

현재(2026년)	5년 후 (2031년)
수도권 중심 교육 환경 • 개발대학 중심의 운영체제 • 지역인재 유출 구조	지역 동반성장 실현 • 지·산·학·연 협력 생태계 조성 • 진학·취업·정주 선순환
지역사회로 문을 여는 학교 • 학생 중심 시설 운영 • 제한적 공간 활용	학교가 지역의 생활 거점으로 •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• 폐교 활용 다각화

2 미래교육을 구현하는 학교

현재(2026년)	5년 후 (2031년)
획일적 교육 중심의 학습공간 • 교과 중심 운영·단일 기능 • AI·디지털 교육 공간 부족	AI·디지털 기반 미래형 학습공간 • 창의융합·기변적 공간 • 첨단 연구 인프라 확충
에너지 소비 중심의 학교 환경 • 재생에너지 전환 기반 부족 • 개별 설비 중심관리	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학교 •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• AI 기반 에너지관리

3 안심하고 머물고 싶은 학교

현재(2026년)	5년 후 (2031년)
사후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 • 안전 제도 시행안학 • 점검 위주 관리	예방적 관리로 더 안전한 학교 • 안전수준 고도화 • IoT를 활용한 선제적 관리
분산된 정보 관리 • 개별적 시설정보 • 데이터 부분 개방	데이터 기반 스마트 관리 • 시설정보 연계 통합 • 대국민 정보 접근성 강화

2031
5년 후 모습

지역 동반성장 기반 구축

- 지·산·학·연 협력 생태계
- 지역 특화 인재 양성
- 지역 활력과 균형발전 기여

미래교육·탄소중립 환경 조성

- AI·디지털 기반 미래형 학습공간
- 지속 가능한 학교환경
- 교육혁신 실현

스마트 안전 및 유지관리

- IoT·AI 기반 안전관리
- 유지관리 효율화
-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